

도시가 역사를 기억하는 법

<10> 폴란드 브로츠와프

‘저항의 상징’ 조각상들 ‘도시 정체성’ 대변하다

1 브로츠와프 도심 한복판에서 만나는 조각상 ‘익명의 사람들’은 폴란드 공산당의 계엄령 선포에 저항했던 사람들을 기억한다.

2,3,4 브로츠와프의 상징으로 자리잡은 ‘난쟁이’들은 저마다의 스토리를 담고 있다.



‘오렌지 대안운동’ 지하조직 반정부 슬로건과 함께 그린 ‘난쟁이’ 300여개 동상 관광자원 인기

1981년 계엄령 선포 이후 검거·탄압으로 고통받던 역사 ‘익명의 보행자들’로 기억

마치 보물 찾기를 하는 기분이 들었다. 작정하고 찾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게, 무심히 거리를 걷다 발견하게 되면 즐거움이 더 컸다. 폴란드 브로츠와프에서의 일정은 ‘작은 난쟁이들’을 찾는 여정이었다. 바르샤바에서 기차로 4시간 정도 떨어진 브로츠와프는 폴란드 최고의 공업도시로 꼽힌다. 삼성·LG 등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곳이기도 하다. 독일 영토였던 브로츠와프는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전과 함께 폴란드로 귀속됐다. 13세기 세워진 고딕 양식 시청사가 있는 르네상스 등은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고, 골목 구석구석에는 옛 흔적이 남아있다. 2016년에는 유럽문화수도로 선정되기도 했다. 브로츠와프에는 특별한 즐거움이 있다. 도심 구석 구석에 세워진 난쟁이 동상들을 찾는 일이다. 동상은 시민들의 저항운동과 관계가 있다. 1980년 자유연대운동 이후 계엄령이 선포되고 공산당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억압을 심해진다. 폴란드 전역에서 반체제 운동이 벌어지고 브로츠와프에서는 ‘오렌지 대안운동’(Osange Alternative

Movent)이라는 지하조직이 반정부 슬로건과 함께 일명 ‘붉은머리 요정’(난쟁이)을 도시 곳곳에 그리기 시작했다. 계엄령 기간동안 그들은 저항의 상징이 됐고 2001년 난쟁이 청동 동상이 처음 세워진다. 이후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20~30cm의 아주 작은 동상은 현재 300여개에 이른다. 저항의 상징으로 출발했던 동상은 이제 역사를 기억하는 차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도시의 정체성을 형성하며 관광자원으로도 활용중이다. ‘난쟁이 워킹 투어’도 있고, 거리를 걷다보면 ‘난쟁이 지도’를 들고 난쟁이 찾기에 여념이 없는 사람들을 쉽게 만난다. 취재 중 가장 먼저 만난 건 음악당 앞의 오케스트라 난쟁이들이었다. 이어 시지프스의 신화 속 주인공 공을 떠올리게 하는 난쟁이, 소방활동 중인 난쟁이, 폭음중인 난쟁이 등을 만났다. 각각의 난쟁이들은 다양한 스토리를 담고 있다. 또 가게, 음식점, 은행, 교회, 오페라하우스 등에 세워진 난쟁이들은 건물이나 가게가 어떤 곳인지 단박에 알려주기도 해



여행자에게는 근사한 길라잡이도 된다. 난쟁이 찾기에 몰두하던 중 인상적인 조각상을 만났다. 브로츠와프 스비드니카 거리에 설치된 ‘익명의 보행자(Anonymous Passerby)’다. 세계 유수 저널들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인 조각작품’ 등에 이름을 올리기도 한 작품으로 사진으로 접

하기는 했지만 현장에서 보는 감정은 남달랐다. 1981년 12월 선포된 계엄령으로 2000여명의 반정부 인사들이 체포된다. 하지만 노조의 연대투쟁과 국민들의 민주화 운동으로 계엄령은 선포 19개월 만인 1983년 7월 해제되고, 이후 폴란드는 1989년 동구권에서 최초의 비공산 연립정부를 출범시킨다. 2005년에 설치된 이 작품은 계엄령 선포 이후 많은 이들이 검거되고 탄압받은 역사를 기억한다. 보도블럭 바닥을 뚫고 바닥으로 가라앉거나, 바닥에 울라라고 있는 듯 보이는 실물 사람 크기의 조형물은 횡단보도를 사이에 두고 양쪽 보도에 각각 7명씩 설치돼 있다. 지팡이를 짚고 걷는 노인, 유모차를 끌고 가는 엄마, 중절모를 쓴 신사, 타이어를 든 노동자 등이다. 가라앉는 모습으로 표현된 7명은 계엄령으로 탄압받던 시절을, 반대편의 솟아오르는 7명은 계엄령 해제 후 새롭게 출발하는 사람들을 묘사했다고 한다. 도심 한복판에서 만나는 역사의 현장은 강렬한 인상으로 남았다.

아우슈비츠 수용소, 결코 잊어서는 안될 역사의 현장



최초·최대 규모 나치 수용소 최소 130만명 강제 이송 유대인 학살 등 자행 가스실·화장터 등 보존



▲▲아우슈비츠 수용소 정문에는 ‘노동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뜻의 글귀가 적혀 있다. ▲유대인들이 수용소에서 사용했던 생활용품들.

550년 동안 폴란드 왕국의 수도였던 크라쿠프는 1978년 유럽에서는 처음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도시다. 방문객들은 중세의 흔적을 간직한 중앙시장 광장, 바벨성 등을 둘러보며 고도(古都)의 매력에 빠져든다. 역사의 현장을 찾는 이들도 있다. 영화 ‘쉘러리스트’의 실제 인물인 독일 기업인 오스카 쉘러가 1200여명의 유대인을 직원으로 채용해 목숨을 구해준 쉘러 공장이다. 그리고 또 한곳, 제2차 세계대전의 참혹함을 상징하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발길을 옮긴다. 크라쿠프 버스터널에서 1시간 30분을 달려 아우슈비츠(폴란드어 오시비엥점)에 도착했다. 폴란드 육군 병영기지를 개조한 아우슈비츠 수용소(1940년 6월~1945년 1월)는 독일이 점령한 폴란드 영토에 세워진 최초의 나치 집단 수용소이자 최대 규모의 시설이었고 1942년부터는 유대인 집단 학살 시설로 변모했다. 아우슈비츠가 존재하던 기간 독일군은 유대인 110만명을 포함, 최소 130만명을 강제 이송했고 이중 90만명은 유대인 수용소에 도착하지마자 가스실에서 학살됐다. 1947년 설립된 희생자박물관과 추모공간은 제1아우슈비츠와 제2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수용소로 이뤄져있다. ‘노동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강제수용소의 상징같은 구호가 적힌 문을 지나 전시관으로 향하는 길, 수용소 오케스트라의 사진이 눈에 밟힌다. 27개의 블록으로 나뉜 각각의 공간에 마련된 전시실에서는 집단 학살의 과정과 역사, 생활상을 만날 수 있다. 무엇보다 강렬한 인상을 주는 곳은 5블록의 ‘범죄의 증거물’이다. 셀 수 없이 많은

안경, 낡은 신발, 강제이송된 유대인들이 지녔던 여행기방 등은 떠난 이들을 떠올리게 하고, 그들이 행거는 낱비와 그릇 등 생활용품들은 자신들이 이곳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사실을 보여주는 듯해 안타깝다. 어린아이들의 옷과 신발, 그리고 아이들의 사진은 특히 마음을 아프게 한다. 수용소 거주인 중 아동·청소년은 23만명에 달했고 이중 700여명만 생존했다. 11블록에서 만나는 안마당은 일명 ‘죽음의 벽’으로 총살 집행이 이루어진 장소다. 이곳에서는 SS원위대가 정치범을 비롯해 5000명 이상의 사람을 총살했다. 또 취사장 앞의 집단 교수대, 가스실과 화장장 등도 보존돼 있다. 전시공간 중에는 사진을 찍을 수 없는 곳이 있다. 가스실에서 학살당한 13만명의 여성에게서 자른 21의 머리카락이 전시된 곳이다. 머리카락은 직물 제조 원료 등으로 사용됐고 전시장에는 머리카락으로 짠 모포도 있다. 또 수백명 유대여성을 대상으로 불임 등의 의학실험을 했던 공간은 공개되지 않는다. 3km 떨어진 비르케나우 수용소는 너른 들만에 자리하고 있다. 옆으로 길게 뻗은 붉은 벽돌 건물 가운데를 통과하는 선로가 보인다. 1944년 5월부터 대학살의 대상이 된, 유대인들을 실은 열차는 이 관문을 통해 수용소 중앙지점의 램프에 정차했다. 50만명의 유대인을 강제이송한 기찻길이 끝나는 지점이다. 수용소에서는 가스실과 화장장의 잔해들, 수감자들이 주로 사용했던 23개 언어로 쓰인 추모비 등도 놓여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